

LCD 패널 · TV 시장 성장성 둔화

2007년 매출 535억달러로 20% 증가 그쳐 ... 타이완 · 한국 증설 연기

2007년 LCD TV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자업체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07년 LCD TV 매출이 535억 달러로 2006년 447억달러에 비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06년의 매출증가율 76%에 비하면 크게 뒤지는 것이다.

또 2007년 LCD TV 판매대수는 6250만대로 2006년 3970만대에 비해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역시 2006년 판매대수 증가율 95%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아이서플라이는 “2006년 급격한 공급증가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2007년 LCD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타이완의 상위 LCD 패널 제조기업인 AUO와 CMO가 나란히 2007년 계획했던 LCD 패널 양산 일정을 늦추고 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AUO는 2007년 4/4분기로 예정했던 2번째 7.5세대 생산라인에서의 LCD 패널 양산을 2008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CMO도 8세대 라인의 LCD 패널 양산을 2009년 이후로 늦추었다.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국내기업들도 세계 LCD TV 시장 동향에 따라 LCD 패널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후식 한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체 총 생산량은 줄어들겠지만 2006년 LCD 공급이 넘치면서 LCD 패널과 TV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2007년 공급이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5>